

CONTENTS

본교재와 해설지 모두 맨 뒤쪽에는 '빠른 정답'이 있습니다. 해설지를 보기 전 채점을 하고 싶으시다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권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생각의 시작

Day 1

교재의 사용법	012P
국어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 : '생각'합니다.	019P
필연성, '생각'의 시작	022P
글 읽기의 시작 - 어휘력	025P
수능 문학에서는 이러한 능력들을 요구한다.	028P
선지 판단의 대원칙 : 독해하고,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029P

Day 2

문학 개념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042P
-------------------	------

Day 3

현대사는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062P
-----------------------	------

생각의 전개

Day 4~Day 12

시와 수필 : 운문문학은 주제 중심으로 해결한다.	072P
-----------------------------	------

Day 13~Day 22

소설과 극문학 : 산문문학을 통해 인물의 삶을 간접경험한다.	118P
-----------------------------------	------

2권

P.I.R.A.M 국어 생각의 전개 문학편

생각의 확장

Day 23~Day 25

고전시가의 세계관은 단순하다.

Day 26~Day 28

고전소설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위로이다.

Day 29~Day 30

현대소설은 암울한 현대사를 반영한다.

Day 31~Day 34

현대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Day 35~Day 38

실전 문제풀이 연습

Day 39~Day 40

생각의 틀 총정리
2025학년도 수능

교재를 마무리한 후

지문 목차 _ 문학편

복습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문의 목차를 정리했습니다. 설명을 위해 예시로 들었던 지문을 제외하고, 한 지문 단위로 공부해보았던 지문만 정리했습니다.

1권

생각의 시작

Day 2 선지 판단의 대원칙 : 독해하고,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2011.06 [19~22] 현대시 '강우'	036P
2018.06 [26~29] 현대시 '결빙의 아버지'	037P
2013.06 [13~18] 현대시 '알 수 없어요'	038P
2017.06 [34~38] 현대시 '향현'	039P
2023.06 [32~34] 현대시 '향아'	040P
2015.09A [34~37] 극문학 '안개'	041P

생각의 전개

Day 4~Day 12 시와 수필 : 운문문학은 주제 중심으로 해결한다.

2015.11B [43~45] 현대시 '고향 앞에서 / 낡은 집'	076P
2020.11 [43~45] 현대시 '바람이 불어 / 새'	078P
2019.11 [43~45] 고전시가 '일동장유가'	080P
2018.09 [20~22] 현대시 '플라타너스 / 달'	082P
2019.06 [27~31] 현대시+수필 '휴전선 / 우포늪 왓새 / 주을온천행'	084P
2023.09 [22~27] 현대시+수필 '별 - 금강산시 3 / 길 / 편지'	087P
2025.06 [22~26] 고전시가+수필 '우부가 / 타농설'	090P
2022.11 [18~23] 현대시+수필 '초가 / 거산호 2 / 담초'	093P
2024.11 [32~34] 고전시가 '일동장유가 / 화암구곡'	096P
2022.09 [28~31] 현대시 '종가 / 노래와 이야기'	098P
2021.12 [38~42] 고전시가+수필 '사미인곡 / 창 밖의 워석버석~ /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100P
2024.06 [31~34] 현대시 '맹세 / 봄'	104P
2022.11 [32~34] 고전시가 '탄궁가 / 농가'	106P
2011.11 [13~16] 현대시 '자화상 / 선제리 아낙네들 / 그 나무'	108P
2021.09 [38~42] 고전시가+수필 '만흥 / 우연'	110P
2024.09 [22~27] 현대시+수필 '월훈 / 연 1 / 문의당기'	112P
2010.11 [32~37] 현대시+고전시가 '승무 / 지리산 뽕꼭새 / 면앙정가'	115P

Day 13~Day 22 소설과 극문학 : 산문문학을 통해 인물의 삶을 간접경험한다.

2018.09 [43~45] 현대소설 '눈이 오면'	126P
2023.09 [28~31] 현대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5'	128P
2020.09 [32~34] 고전소설 '장끼전'	130P
2008.09 [40~43] 현대소설 '날개'	132P
2019.09 [39~41] 극문학 '공동 경비 구역 JSA'	134P

2014.11B [35~37] 현대소설 '소문의 벽'	136P
2020.06 [16~18] 현대소설 '토지'	138P
2021.12 [22~25] 현대소설 '사막을 건너는 법'	140P
2020.11 [33~36] 고전소설 '유씨삼대록'	142P
2012.11 [37~39] 극문학 '산허구리'	144P
2017.06 [39~42] 현대소설 '삼대'	146P
2013.09 [47~50] 현대소설 '역마'	148P
2024.09 [28~31] 현대소설 '원미동 시인'	150P
2022.06 [18~21] 현대소설 '무사와 악사'	152P
2022예시 [26~29] 현대소설 '무정'	155P
2024.09 [18~21] 고전소설 '숙영낭자전'	158P
2023.06 [28~31] 현대소설 '미스터 방'	160P
2024.06 [27~30] 현대소설 '무성격자'	162P
2017LEET [7~10] 현대소설 '가면의 꿈'	164P

2권

생각의 확장

Day 25~Day 28 고전시가의 세계관은 단순하다.

- 2020.06 [32~36] 고전시가+수필 '유원십이곡 / 조용'
- 2019.09 [16~20] 고전시가+현대시 '한겨십팔곡 / 추억에서'
- 2020.09 [16~20] 고전시가 '상춘곡 / 고산구곡가'
- 2022.09 [32~34] 고전시가 '규원가 / 재 위에 우뚝 선~'
- 2019.06 [32~34] 고전시가 '서경별곡 / 만분가'
- 2015.06B [43~45] 고전시가 '도산십이곡'
- 2023.11 [22~26] 고전시가+수필 '도산십이곡 / 지수정가 / 겸재의 빛'
- 2015.11B [31~34] 고전시가 '관동별곡 / 유한라산기'

Day 26~Day 38 고전소설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위로이다.

- 2020.06 [23~26] 고전소설 '조웅전'
- 2022예시 [11~15] 고전소설 '박씨전 / 조보'
- 2024.11 [18~21] 고전소설 '김원전'
- 2023.09 [18~21] 고전소설 '정수정전'
- 2022.11 [28~31] 고전소설 '박태보전'
- 2017.06 [43~45] 고전소설 '최척전'
- 2022.06 [28~31] 고전소설 '채봉감별곡'
- 2017.09 [40~45] 고전소설 '김현감호 / 이생규장전'

Day 29~Day 30 현대소설은 암울한 현대사를 반영한다.

- 2016.09B [39~41] 현대소설 '옛우물'
- 2019.09 [42~45] 현대소설 '비 오는 길'
- 2021.09 [16~19] 현대소설 '고향'
- 2016.09A [39~42] 현대소설 '잔등'
- 2019.11 [21~26] 현대소설+극문학 '천변풍경 / 오발탄'

Day 31~Day 34 현대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 2019.11 [33~35] 현대시 '출생기 /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2017.09 [19~20] 현대시 '병원 / 나무'
- 2013.09 [27~30] 현대시 '또 다른 고향 / 자화상 · 2 / 멀치'
- 2020.06 [43~45] 현대시 '추일서정 / 하늘과 돌맹이'
- 2009.06 [20~23] 현대시 '여승 / 못 위의 잠 / 결빙의 아버지'
- 2025.09 [22~27] 현대시+수필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 / 이문원노종기'

2018.11 [20~22] 현대시 '강 건너간 노래 / 묘비명'
2017.11 [27~32] 현대시+극문학 '구름의 파수병 / 느낌, 극락같은'

Day 35~Day 38 실전 문제풀이

2019.11 [36~38] 고전소설 '임장군전'
2024.06 [22~26] 고전시가+수필 '한거십팔곡 / 기취서행'
2025.06 [27~30] 현대소설 '아버지의 땅'
2022.06 [32~34] 현대시 '연륜 / 대장간의 유혹'
2021.12 [31~33] 고전소설 '최고운전'
2025.06 [31~34] 현대시 '청산행 / 사실과 관습 : 고독 이후'
2015.11AB [38~42] 현대소설 '무영탑'
2024.09 [32~34] 고전시가 '성산별곡 / 생매 잡아 길 잘 들어~'
2025.06 [18~21] 고전소설 '이대봉전'
2022예시 [22~25] 고전시가 '개와 관련된 시조'
2024.11 [28~31] 현대소설 '골목 안'
2021.06 [22~24] 현대시 '산상의 노래 / 나무의 수사학 1'
2023.06 [18~21] 고전소설 '소현성록'
2024.11 [22~27] 현대시+수필 '문 /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잊음을 논함'
2025.09 [28~31] 현대소설 '날개 또는 수갑'
2023.09 [32~34] 고전시가 '어부단가 / 소유정가'

P . I . R . A . M

본격적으로, 수능이라는 시험의 특성을 바탕으로 문학 영역의 출제의도에 대해 생각해본 뒤, 선지 판단의 대원칙을 세워봅시다. 교재의 전반부이지만, 이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학 공부의 감을 잃을 때마다, 몇 번이고 이 페이지를 들춰보며 다시 정리하도록 합시다.

수능 문학에서는 이러한 능력들을 요구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매년 '20xx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라는 자료를 발간합니다. 다음 글은 해당 자료의 2025학년도 수능 버전에서 발췌한 '문학' 영역의 평가 목표입니다. 사실상 이번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문학' 영역의 평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 능력은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심미적·창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가치있는 삶과 세계의 창조에 기초가 되는 상상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국어 능력 중 하나이다.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어휘력, 사실적·추론적·비판적·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하략)

이 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문학 능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평가원은 '문학 능력'을 통해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가치있는 삶과 세계의 창조에 기초가 되는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네요. 말이 조금 어려우니, 좀 더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학을 통해 다른 인물의 삶을 '간접경험'하게 됩니다. 식민지 생활·전쟁·독재에 대한 저항·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등 직접 경험하기 힘든 여러 상황·갈등을 겪은 인물들의 심정과 행동을 이야기 형식(소설) 혹은 운율적인 언어의 형태(시)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인물들의 '삶'과 그들이 처한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아 저런 삶도 존재하는구나.', '저런 상황에선 저런 감정이 들겠구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생각은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고,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는 '가치있는 삶과 세계의 창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학 능력'은 '공감 능력'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문학은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키워주고 이를 바탕으로 더 '가치있는 삶과 세계'를 창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능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설이나 시에 적힌 텍스트를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는 이를 '어휘력, 수용과 생산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휘력'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사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인물들의 심리를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보기> 및 비평문 등의 도움을 받아 더욱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텍스트 독해력'이 갖춰질 때 비로소 '공감'이라는 '문학 능력'을 탑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뒷글을 보면, 평가원은 서로 '공감'하는 '가치있는 삶과 세계'의 창조에 기초가 되는 능력으로 '상상력'을 제시하고 있어요. 문학 작품을 '독해'하며 그 속에 있는 인물들에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작품 속 상황을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시를 읽든 소설을 읽든, 작품 속에 제시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문학의 실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 시각적 자극이 있는 매체를 볼 때 인물들에게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그 장면을 눈앞에 보여 주니, '공감'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작품 속 상황을 '상상'하면서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결국 수능 문학은 여러분이 작품에 제시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상황을 ‘상상’하며 정확히 읽어낼 ‘독해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인물 및 화자의 상황·심정에 ‘공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교재는 이제부터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과 ‘독해력’, 그리고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시할 것이예요. 여러분도 이 목적을 잊지 않은 채로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문학의 핵심 : 상황을 상상하며 독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한다.〉

선지 판단의 대원칙 : 독해하고,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그렇다면, ‘수능 문학을 잘한다.’라는 명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단순히 다 맞는 것? 앞에서 말한 ‘공감’을 엄청나게 잘 해내는 것?

이에 대한 정답은 없겠지만, 이 교재에서는 ‘수능 문학을 잘한다.’를 <EBS의 도움 없이도 빠르게(4지문/20분 초반) 다 맞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다.>로 정의합니다. 수능 국어에서 결국 주요 변별 요소는 ‘독서’ 영역입니다. 그런데 독서 파트는 다른 파트와는 요구하는 사고의 깊이가 차원이 달라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며 문제를 풀어야만 하고,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학을 ‘빠르게’ 다 맞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문학을 ‘빠르게 다 맞기’ 위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 교재로 공부하면서 단순히 정답률이 올랐다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 맞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먼저 신문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인도 틀리는 수능 영어?!’와 함께 수능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단골 레퍼토리가기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기사이기도 한데, 이 파트는 이 기사의 내용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000 시인 “내 시가 출제됐는데, 나도 모두 틀렸다.”

- ‘모의수능에 단골로 등장하는 작가’ 문학교육에 쓴 소리

000 시인이 “내가 쓴 시가 나온 대입 문제를 풀어 봤는데 작가인 내가 모두 틀렸다”고 말했다. ~ 그는 “작가의 의도를 묻는 문제를 진짜 작가가 모른다면 누가 아는 건지 참 미스터리”라며 쓴소리를 했다. ~

아마 관련 내용을 본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명 시인이 TV 프로그램에 나와 모의고사에 출제된 본인의 시와 관련된 문제를 풀었고, 모두 틀리자 ‘시인도 틀리는 수능 문학!’이라는 프레임으로 수능이 무의미한 시험이라는 주장을 펼쳤던 사건이죠.

일단 위의 시인이 푼 문제가 수능 문제도, 평가원 모의평가 문제도 아닌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그리고 당시 시인이 지문이나 <보기>를 읽지도 않고 그냥 풀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판 속에 수능 문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완전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수능 문학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더 많은 표현법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4개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평가원이 표현법 자체를 묻는 문제의 출제는 지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뒤에서 과거 기출 선지들을 통해 중요한 표현법들은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성 상징어

-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임의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2022.09)
- ③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상 세계의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2023.06)
-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2024.09)

의외로 자주 출제되는 ‘음성 상징어’입니다. ‘음성 상징어’는 말 그대로 ‘음성’으로 어떤 대상을 ‘상징’하는 언‘어’를 말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성어’는 특정한 소리를 흉내내는 말입니다. ‘꼬끼오’, ‘쩍쩍’, ‘부릉부릉’ 같은 표현들이 이에 해당하죠. 한편 ‘의태어’는 특정한 움직임이나 상태를 흉내내는 말입니다. ‘깡충깡충’, ‘야금야금’, ‘싱글빙글’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자아의 내면세계’나 화자를 둘러싼 상황을 더욱 풍부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의외로 자주 사용되니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가상 / 환상적

- ⑤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2023.11)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내고 있다. (2024.09)

특히 고전소설에서 자주 출제되는 ‘가상’과 ‘환상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도 정리해봅시다. 먼저 ‘가상’은 말 그대로 ‘가상’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든,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든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면 모두 ‘가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랑 결혼하면 내가 정말 잘해줄게!’라는 표현이나, (실제로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음.) ‘하늘의 별을 딸 수 있다면 너에게 줄 텐데’와 같은 표현(하늘의 별을 따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라,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속함)은 모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 ‘환상적’이라는 표현은 ‘비현실적’으로 바뀌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가상’의 상황 중에서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을 다루는 개념이 바로 ‘환상적’이라는 표현이에요. 문학 문제를 풀다가 ‘환상적’이라는 표현을 만나면, ‘비현실적’으로 바뀌서 생각하면 판단이 쉬울 것입니다.

구체적

- ②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장면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2024.06)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025.09)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각적’으로 묘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묘사하면 허용됩니다. 나아가 ‘구체적 묘사’가 있으면, 장면의 ‘현장성’도 당연히 강화될 것입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니까요.

이 정도만 알아도 특정한 용어의 의미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외에도 알아야 하는 것들은 뒤에서 다 설명해드릴 테니, 일단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거시적인 선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문학 개념어'라고 불리는 것들은 사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의미 그대로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몇몇 용어들의 의미에 대해서만 정확히 합의가 되어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있다고 해도, 결국 지문 속에서 해당 개념들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학 개념어' 문제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시험장에서 선지에서 묻는 개념들을 하나하나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수능 문학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상상력'과 '독해력'을 바탕으로 인물의 '내면세계'에 '공감'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 세세한 개념어를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평가원은 소위 '문학 개념어 문제'의 정답 선지를 아주 '거시적'인 범위에서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거시적'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몇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해봅시다.

다음은 최근 4개년 이전, 소위 '문학 개념어 문제'의 정답 선지로 제시된 선지들입니다.

-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2011.06)
- ①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2011.09)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2011.11)
- ⑤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2.06)
- ②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2012.09)
- ⑤ 친숙한 사물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2012.11)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2013.06)
-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2013.09)
- ⑤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2013.11)
- ①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014.06B)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2014.11AB)
- ③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015.06A)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015.06B)
- ④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2016.06AB)
- ②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2016.09AB)
- ④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2018.06)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2019.06)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2019.09)
-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019.11)
- ① 대조적 소재를 통해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020.06)
- ⑤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020.09)

감이 좋은 학생들은, 굵은 글씨를 중심으로 선지를 보면 무언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거시적'인 범위의 내용들이에요.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 4개년 기출 선지들을 통해 다시 정리해봅시다.

‘주제 의식’이 포함된 선지

- ③ (가)와 (나)는 모두 화자와 소재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2022예시)
-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2023.06)
- ② (나)는 상징성을 띤 사건의 전개를 통해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2023.06)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2024.09)
- ① (가)는 열거의 방식을, (나)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2025.06)
- ② (나)는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2025.06)

어떠한 내용,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제시/부각/암시/심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제 의식’이라는 표현이 있는 선지는 ‘거시적’인 범위의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제 의식’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선지는 아니지만, 이런 선지는 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매우 ‘거시적’인 범위의 선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표현은 ‘시상을 전개’, ‘시적 분위기를 조성’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작품의 모든 표현은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시상을 전개하고,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런 표현 자체는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으니,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포함된 선지가 ‘거시적’이고, ‘답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세계’가 포함된 선지

-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022.06)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022.06)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2024.09)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포착된 사물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025.06)

앞에서 ‘내면세계’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자아의 내면세계’가 곧 문학 작품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주제’를 드러낸다는 표현이 있는 선지는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시적’인 범위의 선지라고 했어요. 이를 종합하면, ‘자아의 내면세계’(인식·정서·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선지 역시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이라면 당연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선지는 ‘거시적’인 범위의 선지라고 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자의 상황’이 포함된 선지

-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2022.06)
- ④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2022.11)
-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023.06)
-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2023.09)
- ④ **계절감을 활용**하여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2023.11)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025.06)

‘화자의 내면세계’는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시는 화자의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요소에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선지는 답일 가능성이 높은, ‘거시적’인 범위의 선지이니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능 문학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운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운문문학 문제를 대하는 '실전적'인 태도를 세워보도록 합시다.

시와 수필 : 운문문학은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실전'에 맞춘 이야기입니다. 왜 실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체화하시면, '운문문학이 어려워요.'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한 번 가봅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문학의 핵심은 결국 '허용 가능성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해석'을 배제한 채, 지문 속 '객관적인 근거'만을 바탕으로 선지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근거'를 찾기 위한 '독해'의 방법은 어제 배웠듯이 '일상 언어의 감각' 그대로 읽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수능 문학'이 결국 '문학'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을 묻는 시험이라는 점에 근거한 독해 태도였어요. 시 역시 독서 지문처럼 하나의 '글'이므로, 담백하게 읽어내면 된다는 것이죠.

문학 작품도 하나의 '글'이라면, 결국 하나의 '주제'가 존재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주제인 '시'처럼 짧은 글에서 주제가 여러 가지로 확확 바뀐다면, 그 작품을 '좋은 글'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좋은 글'이 아니라면, 수능에 출제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 '독해'하며 읽는 태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어제 배운 것처럼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독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시를 독해할 때는 그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주목하며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시'의 주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일단 '시'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시다.

문학의 한 장르.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니라, 네이버 지식백과라는 나름 권위 있는(아마 네이버가 권위 있는 단체의 정의를 참고했겠죠.) 곳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대충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쉽게 풀어 봅시다. '자연이나 인생'은 어떤 걸 뜻할까요?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혹은 화자가 놓인 시·공간적 배경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화자가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감흥과 사상'은 어떤 걸 뜻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화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즉 화자가 처한 상황 속 '반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위의 정의를 쉽게 표현했을 때 '시'란 곧 '화자의 상황과 반응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주제' 역시 '화자의 상황과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문학 글들이 '주제'를 '명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면, '시'는 '주제'를 '함축적·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이때의 '반응'은 곧 '내면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시는 결국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그에 대한 반응, 즉 '내면세계'를 주제로 하는 글인 것입니다. 결국 이 교재에서 '반응' 혹은 '시의 주제'라는 표현이 제시되는 경우, '내면세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배운 내용이 떠오르면서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63~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4.09 [22~27]

(해설 p.137)

(가)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깁 속 같은 마을. ㉠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숙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 후루룩 후루룩 처마 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읍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읍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흠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박용래, 「월훈」-

* 허방다리 :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 풀 등을 덮어 위장한 구덩이.

(나)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박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풀하다*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오! 흰 연 그새에 높이
㉢ 아실아실* 떠 놀다 내 어린 날!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 희끗희끗한 실날이 서러워
아침저녁 나무 밑에 울다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냇 담고
㉤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욱
자욱마다 눈물이 고이였었다

-김영랑, 「연1」-

* 아슴풀하다 : '아슴푸레하다'의 방언.

* 조매롭고 : '조마롭다'의 방언. 보기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 아실아실 : '아슬아슬'의 방언.

(다)

㉥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 하고 ㉦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진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文瀾)*'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기문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라고.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 리를 간 것이나 매한 가지라 할 것이오.”

-서영보, 「문의당기」-

* 문의: 물결무늬.

6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④ 과거의 장면을 회상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을 포착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내고 있다.

6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이다. 향토적인 정경 속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①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데서,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라는 배경 설정에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난 향토적 정경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④ ‘깊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밭은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과 눈발이 치는 듯한 ‘뼉’의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져, 노인의 고독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6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슴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 ② 2연에서 ‘조매롭고’로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 3연에서 연실이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의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 ③ 3연에서 ‘울다’의 반복과 4연에서 ‘눈물이 고이었었다’를 통해 ‘내 어린 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냇’은 ‘붉은 발자욱’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1연과 4연의 ‘내 어린 날’은 2연의 ‘내 어린 날’의 기억을 통해 떠올린 유년 시절을 표상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6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시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 ② ㉡: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인 실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외롭고 슬픈 어린 시절의 정서를 함께 담아내고 있다.

6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으로 사고를 전환한다.
- ② ㉠이 '자기 집'을 '문의'라고 한 것에 ㉢이 동의한 이유는 ㉠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③ ㉢은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 ④ ㉢이 ㉠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다의 섬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 ⑤ ㉢은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이 '물을 보는 법'을 '써 볼 데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68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 속 같은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숨어 있는 두 공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군.
- ② (가)의 '무우'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어 밤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먹는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군.
- ③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④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⑤ (가)의 '창문은 모과빛'과 '기인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해설 p.236)

몽달 씨 나이가 스물일곱이라니까 나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우리는 엄연히 친구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스물일곱짜리 남자 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슈퍼의 김 반장이 바로 또 하나의 내 친구인데 그는 원미동 23통 5반의 반장으로 누구보다도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의 비치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킁킁거리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 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투명스러워졌다. ㉠ 그 까닭도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가 지난달에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 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김 반장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지내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이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가 하는 옷 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 버렸다. 선옥이 언니는 얼굴이 아주 예뻐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지리 궁상인 우리 집에 두고 보기로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지리 궁상이 지겨워 맨날 똥하던 언니였다.

(중략)

집으로 가다 말고 문득 형제슈퍼 쪽을 돌아보니 음료수 박스들을 차곡차곡 쌓여 놓는 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몽달 씨가 보였다. ㉡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 안색이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핏색했다. 그런데도 뭐가 좋은지 히죽히죽 웃어가면서 열심히 박스들을 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김 반장네 가게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몽달 씨가 분명했다. 저럴 수가. ㉢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아무리 정신이 좀 헛갈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그날 밤의 김 반장 행동을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있었을까. 그날 밤 머리의 어딘가를 세계 다쳐서 김 반장이 자기를 내쫓은 부분만큼만 감쪽같이 지워진 것은 아닐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도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기억 상실증인가 뭔가로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연속극이 있었다. 그런 쪽의 상상이라면 나를 따라올 만한 아이가 없는 형편이었다. 내 머릿속은 기기괴괴한 온갖 상상들로 늘 모래주머니처럼 뻑뻑했으니까. 나는 청소부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부잣집의

버려진 딸이다, 라는 식의 유치한 상상은 작년도 못 되어 이미 졸업했었다. 요즘의 내 상상이란 외계인 아버지와 지구인 엄마와의 사랑, 뭐 그런 쪽의 의젓한 것이었다. ㉣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 씨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확인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김 반장네 가게 일을 거들어 주고 난 뒤 비치파라솔 밑의 의자에 앉아 땀기를 읽고 있는 몽달 씨에게로 갔다. 보나 마나 주머니 속에 잔뜩 들어 있는 종잇조각 중의 하나일 것이었다. ㉤ 멀쩡한 정신도 아닌 주제에 이번엔 기억 상실증이란 병까지 얻어 놓고도 여태시 따위나 읽고 있는 몽달 씨 꼴이 한심했다.

“㉠ 이거, 또 시예요?”“㉢ 그래. 슬픈 시야. 아주 슬픈…….”

몽달 씨가 핏색한 얼굴을 쳐들며 행복하게 웃었다. 슬픈 시라고 해 놓고선 웃다니. 나는 이맛살을 찡그리며 몽달 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 이제 다 나왔어요?”“㉣ 응. 시를 읽으면서 누워 있었더니 금방 나왔지.”

금방은 무슨 금방. 열흘이나 되었는데. 또 한 번 나는 몽달 씨의 형편없는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

“그날 밤에 난 여기에 앉아서 다 봤어요.”

“무얼?”

“㉤ 김 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순간 몽달 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의 그 풀려 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작정인지 팬스레 팔뚝에 엉겨 붙은 상처 딱지를 떼어 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바짝 다가앉았다.

“㉢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요?”

몽달 씨가 팔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라고 응수했는데도 나는 계속 다그쳤다.

“㉤ 그렇지요? 맞죠?”

그래도 몽달 씨는 못 들은 척 팔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 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도 몽달 씨는 마냥 단전만 피우고 있었다.

-양귀자, 「원미동 시인」-

43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몽달 씨는 김 반장이 자기를 매정하게 대했으나, 김 반장네 가게 일을 해 주고 있다.
- ② 김 반장은 선옥을 좋아했으나, 선옥이 서울로 가자 ‘나’를 통해 선옥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 ③ ‘나’는 김 반장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으나, 김 반장이 빈둥거리며 실없는 행동을 해서 당황했다.
- ④ 선옥은 자신의 집안 형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집안 형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⑤ ‘나’는 몽달 씨를 친구라 여겼으나, 몽달 씨가 김 반장 가게에 다시 나온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후회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상대를 못마땅해하는 발언이지만, ㉡를 고려하면 상대의 상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와 ㉣의 시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고려하면, 인물이 시를 통해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는 ㉣를 듣고 실망하여, 상대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하며 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는 ㉤에 대한 상대의 반응이 예상을 벗어났지만, 상대가 보여 준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는 ㉥의 주장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상대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45 형제슈퍼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매일같이’ 김 반장과 재미있게 킁킁거리던 행위는 ‘그날’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그날’의 일을 지켜보기만 한 ‘나’의 부정적 자기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② 김 반장이 ‘나’를 통명스럽게 대하는 행위는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반성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몽달 씨가 ‘히죽히죽’ 웃는 행위는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행위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보여 주고 있다.

- ④ ‘의자’에서 ‘뭔가’를 읽는 몽달 씨의 행위는 ‘여기’에서 환기된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그날’ 느꼈을 긴박감과 대비되는 이완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여기’에서 목격된 ‘그날’ 김 반장의 행위는 ‘요즘’보다 이후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나’가 김 반장을 이전과 다르게 평가하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46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강화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한다. 이때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독자는 서술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술적 상황과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가 서로 달라져 작품을 더욱 집중해서 읽게 된다.

- ① ㉠: 문제적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고, 인물의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② ㉡: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보여 주고, 인물의 안색과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③ ㉢: 논리적 연관을 무시하고, 추측에 근거하여 인물의 의식 상태를 단정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인물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⑤ ㉦: 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인물의 취향을 비난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군.

DAY 7 [18~23]

2023.09 [22~27] 현대시+수필 '별-금강산시 3 / 길 / 편지'

☆☆☆

<보기> 확인

[보기]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가)와 (나)의 주제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는 '자연과의 교감'을, (나)는 '길을 통한 성찰 및 깨달음' 정도로 주제를 잡아두면 되겠죠? 이러한 주제에 맞춰서 선지 판단할 준비를 합시다.

[보기]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수필인 (나) 작품의 주제도 챙겨두고 갑시다.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한다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가 생소하니, 조금은 꼼꼼하게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전적 지문 독해

(가)

아아 아득히 내 철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낱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충충히 외롭도 잊고 왔더니라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홀 홀 홀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싸아—한중일내—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박두진, '별-금강산시 3'-

'철첩한 산길'에 '외로움도 잊고' 혼자 와서 자연의 모습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용된 단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자세한 해석은 선지와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나)

-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A]
-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B]
-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C]
-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D]
-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E]
-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A]
-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B]
-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C]
-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D]
-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E]
-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A]
-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B]
-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C]
-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D]
-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E]
-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A]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F」

-신경림, 「길」-

사람들은 자신들이 '길'을 만든 줄 알았지만, 사실 '길'은 사람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네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보기>에서 제시한 주제와 일맥상통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 낭창하였습니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에, 글쓴이는 '당신'이 보내 준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할 겁니다. 실제로 '노란 슬픔'이라는 표현으로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네요. 보아하니, 글쓴이는 어떤 '처녀'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처녀'에 대한 기억 때문에 슬픈 것이겠죠?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중략)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충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중략) 이후에도 계속해서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아름다운 것에 견주다가 '수선화'에 비길 정도로 좋아했던 것 같은데, '처녀'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가슴의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몰라도, 이 때문에 '슬픔'이라는 반응을 얻게 된 것이었네요. 그래서 글쓴이는 '당신'이 보내 준 '수선화'를 치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겠네요.

밤이 아직 썰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형짚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옷간에도 맏옷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텅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 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째듯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데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낚는다고 별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웅패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자갈자갈 하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며 살팽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쌔기도 하게 기왓골의 기왓장을 벗겨 오고 부엌의 솔뚜껑을 들어 오고 곱새담의 짚날을 뽑아 오고…….>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깨득 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

-백석, 「편지」-

* 육보름 : 정월 대보름 다음날.

이렇게 '처녀'와 관련된 '수선화' 이야기를 끝낸 뒤, 글쓴이는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때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가 벌어지는 때네요. <> 표시한 부분은 굳이 꼼꼼히 읽을 필요가 없겠죠? 모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부분일 테니까요. 글쓴이는 이렇게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양면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7%	8%	5%	6%	4%

1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공통점' 문제입니다. 늘 강조하던 대로, '거시적인 측면'의 선지 위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쓸데없이 미시적인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①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문학이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해설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 즉 '비유법'은 문학의 본질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비유법'을 사용하지 않고서 내면이나 상황 등을 멋들어지게 표현하는 건 어려우니까요. 이 선지는 답일 확률이 99%에 육박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해볼까요? (가)의 경우, '장목'이 팔을 벌리고 서 있다고 하며 의지를 지닌 존재로 빗대고 있고, '낙엽'을 '낙화'에 빗대며 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나)의 경우, '길'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다)에서는 '고인 샘물 같은 눈' 등을 통해 비유법을 확인할 수 있네요.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없네.
해설	'과거 회상'에 대한 선지가 나올 때 가장 일차원적인 방법은 '시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의 '왔더니라~'와 (다)의 '좋아하였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근거로 하면 바로 '과거 회상'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내용적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나)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있으니,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제'에 주목하면 빠른 선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③ 영탄적인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랑 (다)에는 없는 것 같다.
해설	'영탄적인 어조'를 찾으려면 문장의 끝부분 위주로 살피면 됩니다. (나)와 (다) 어디에서도 '영탄적 어조'를 찾아보기는 어렵죠? 다만 (가)에는 '아아'라는 명백한 영탄적 어조가 보이네요. 비록 문장 끝부분은 아니어도, 눈에 확 띄는 표현이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④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나)랑 (다)는 전혀 아닌데.
해설	'예스러운 종결 표현'은 쉽게 말해 '옛날 말투 같은 종결 표현'을 의미합니다. (가)의 '~더니라'라는 표현은 뭔가 옛날 말투 같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나아가 '고풍스러운 느낌'은 '옛것과 같은 맛이 있는 느낌'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스러운 말투'가 있으면 당연히 허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에서는 요즘은 안 쓸 것 같은 그런 말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정답으로 고르기는 어렵겠습니다.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시간의 경과는 느낀 적이 없는데?
해설	(가)~(다) 모두 '낙엽', '꽃', '유월' 등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시간의 경과'를 보여 준다는 건 허용하기 어렵죠? '시간의 경과'라는 상황 자체를 읽어낸 적이 없으니까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10%	13%	66%	9%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④

① (가)는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앙상한 사이'를 통해,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낱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연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충충히 외롭도 있고 왔더니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 길을 따라갔지.
해설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앙상한 사이' 모두 화자가 지나 온 곳의 풍경입니다. 가볍게 허용할 수 있네요.

② (가)는 '바다의 별들'과 '하늘에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군.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쏠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두 별들을 주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네.
해설	'바다의 별들'은 '장엄히 뿌리어진' 것으로, '하늘에 별들'은 '꽃과 같이 난만'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서 떠오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 형상화'는 당연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이 작품의 주제와 직결되는 내용이기엔, 무조건 맞는 말로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지를 지워내는 속도가 곧 문학 실력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③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군.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길이 사람들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의 예시니까 맞는 말이네.
해설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 맥락을 독해해야 합니다. 근거를 읽어보니, '벼랑 앞에서' 사람들에게 '낭패'를 주는 것은 '길'이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면,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관점'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뜻'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④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직 성찰할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상황이잖아.

<보기> 확인

[보기]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악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동일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단연 '동일시'네요. '기범'이라는 인물은 '일규'를 동일시하려고 했는데, '일규'의 외면 또는 부재로 인해 '기행과 궤변'을 일삼겠네요. '기범'이 '일규'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부분, 부정 또는 합리화의 과정인 '기행과 궤변'에 주의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제시된 것이니 확실하게 활용해야겠죠?

지문 독해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간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 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앞부분의 줄거리]는 출제자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 직접 작성해준 것이라고 했어요. 외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기범'이 죽기 전의 일을 알기 위해 '구천동'을 찾아간 상태예요. 여기서 '임 씨'를 만날 예정인데, 그 전에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천천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죠?

일단 '기범'은 현재 시점에서 죽어 있고, '나'는 '일규의 장례식'에서 '기범'을 만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재구성해보면, '일규의 죽음→기범과 나의 대화→기범의 죽음→임 씨와 나의 대화'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기범과 나의 대화'에 해당하는 것이구요.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챙긴 채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가 일규를 어떻게 아냐? 네간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기범이 것처럼 미친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허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 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

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놈이 아깝다구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판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구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걷어찼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회상 속에서 누군가가 '기범'에게 '네까짓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기범'은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고 있어요. <보기>를 바탕으로 하면, 이때 '기범'이 보이는 심리와 행동은 '일규'라는 '동일시'의 대상을 잃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장례식에서 속을 끓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과민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반응을 본 '나'는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대화하다가 갑자기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으면 당연히 놀라겠죠. 여기에 '기범'은 '일규'를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나'는 긴장하고 있어요. 정신이 반쯤 나간 '기범'과 그런 모습에 당황한 '나'의 심리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 '기범'은 '일규'를 진정으로 사랑했었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에서 이야기한 '동일시'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보기>를 조금 더 사용해서 독해하면,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동일시의 대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기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라는 대사에서는 동일시의 상대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물에 대한 공감'만큼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지

만, 이렇게 <보기>와의 연결고리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어야 해요.

(중략)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구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처음엔 저 두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더구나 이리루 들어오시자 머리를 깎구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러나 오래 되시구 살다 보니 저대루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소?”

“과거 얘기는 좀체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 같지만 그분은 남하구 다른 묘한 철학을 지니구 계셨습니다.”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소?”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구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 두 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앞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나’는 현재 ‘임 씨’라는 인물과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략) 이후의 상황을 보니 ‘나’는 ‘저’를 만나 기범이 깊은 산골에 들어가 살던 시기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저’가 곧 ‘임 씨’에 해당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앞부분의 줄거리]가 가지는 위력입니다!

‘임 씨’, 즉 ‘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기범’이 도시를 떠나 산골로 들어간 이유를 ‘나’와 ‘저’ 모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기범’이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껴서 산골로 온 것이라 추측하고 있고, ‘기범’의 ‘묘한 철학’, ‘부정의 미학’이 그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끼는데, 이 진동은 바로 기범의 ‘묘한 철학’을 통해 기범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게 되어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가 ‘기범’을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감해주시면 되겠죠?

“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리루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구만 부르셨습니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오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허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두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당신’이 눈 앞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만 있는 게 아닌 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의 ‘당신’은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로, 지문의 ‘기범’을 가리킵니다.

이제 '기범'이 '산속'에 박혀 살게 된 이유가 드러나는 듯합니다. '친구(일규)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기범은 '세상 살 재미'를 잃었고, 그로 인해 세상을 등지고 산골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기범'은 산속에 오기 전과, 오고 난 이후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네요. 과거와 다르게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범 스스로는 '미련한' 삶이라고 칭했지요.

아까 기범의 '묘한 철학'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나'가 '저 시끄럽던 요설들'을 갑자기 떠올립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일규의 죽음, 그리고 '묘한 철학', '시끄럽던 요설들'이 '기범'이 산속으로 오게 된 원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 '기범'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다시 기범이 지꼈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난다. 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위 [A] (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 이라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와 오일규가 맞부딪혔을 때 오일규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홍성원, 「무사와 약사」-

이제 '나'는 기범이 장례식에서 얘기했던 '과거의 요설들'을 떠올리면서 그에 대해 생각합니다. 문제에서 해설하겠지만, 이런 식의 서술을 보통 '관념적 서술'이라고 일컫습니다. 추상성이 두드러지고 개인의 내면과 깊게 결부될수록 관념성은 커지죠. 이런 부분들은 대개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념적이고 어려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일종의 'skip 가능 구간'으로 처리하면서 대강씩 읽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0%	75%	4%	8%	3%

47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나'라는 1인칭 시점, '과거의 요설들'을 떠올리는 회상, '어쩌면', '~같다', '알 수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추측,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눈에 띄네요. 이처럼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된 부분을 [A] 등으로 묶어 물어보는 경우, 그 내용이 아닌 '서술 방식'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도록 합시다.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1인칭 시점인데 객관적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해설	지금 서술자인 '나'는 작품의 이야기 내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기범'의 행동을 추측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굉장히 주관적이네요. 이런 식의 1인칭 시점에서는 '객관적'이라는 선지가 맞기 힘들어요.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 발문을 보면서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지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기범'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이라는 단어의 뜻만 정확히 알았다면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는 없는데?
해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도 아니고,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감난다는 것은 구체적인 묘사를 했다는 것이기에,

	'관념적 서술'이라는 [A] 부분의 특징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는 없는데?
해설	계속 강조하지만,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아닙니다. 또한, [A]는 '회상'이 아닌 '나'의 추측과 평가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생각에 오래 머물고 있으니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는 없는데?
해설	이번에도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틀린 것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한편,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는 것은 맞지만 '갈등 지속'을 허용하기는 어렵죠? '기범'은 죽었기에 갈등이 지속될 수 없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8%	6%	77%	5%

48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① ㉠: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p>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기범이 것처럼 미친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p> <p>“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허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p> <p>㉠ 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p>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웃다가 갑자기 눈물 흘리면 긴장할 만하지.
해설	앞에 있는 사람이 미친 듯이 웃다가 갑자기 울려고 하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겠죠? '나'가 왜 긴장을 했는지 '공감'했다면 쉽게 지을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② ㉡: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외모가 의심을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p>“처음엔 저두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 더구나 이리루 들어오시자 머리를 깎구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러나 오래 뽀시구 살다 보니 저대루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p>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외모까지 의심스러웠다는 말이니까 맞네.
해설	'저'는 '기범'의 정체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와중에, '더구나' 외모까지 독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의심을 가중'했다는 생각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③ ㉢: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궁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p>㉣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p>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상하다고 했으니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걸 허용할 수 있겠다.
해설	'저'는 '기범'의 '묘한 철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범'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상한 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근거가 있으니,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궁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④㉔: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㉔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약속한 적 없잖아?
해설	‘기범’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은 누구와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다는 말 자체가 ‘나’의 ‘추측’일 뿐이니깐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니, 약속을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한 ‘놀라움’이라는 해석은 도저히 허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⑤㉕: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이다.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㉕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스스로 미련하다고 했는데 착한 일이라고 해석했으니 표면적인 뜻과 달리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네.
해설	‘미련’의 표면적인 뜻은 어리석고 멍청한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기범이 말한 미련한 삶은 남들을 위해 사는 착한 삶이었다고 ‘저’는 말합니다.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다른 숨은 뜻도 파악했고, 기범에 대해 ‘우호적’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1%	4%	13%	26%	6%

49 ㉔, 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거 얘기는 좀체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 같지만 그분은 남하구 다른 ㉔ 묘한 철학을 지니구 계셨습니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지껄었던 과거의 ㉕ 요설들이 생각한다.

- ‘묘한 철학’과 ‘요설들’은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둘의 시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㉔는 산골에 온 후에 ‘기범’이 ‘저’에게 한 이야기고, ㉕는 ‘일규’의 장례식에서 ‘기범’이 ‘나’에게 한 이야기죠. 이 정도는 파악해놓고 선지 판단에 나서보도록 합시다.

① ㉔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 환되는 데에 기여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㉔ 듣고 나서 기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했지.
해설	‘저’가 설명하는 기범의 ㉔를 듣고, ‘나’는 가슴에 무언가 진동을 느끼며,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기범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㉔에 대한 얘기가 열쇠가 되어 이후에는 기범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식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하면 충분히 허용 가능한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가 느낀 ‘가슴의 진동’이라는 심리에 공감하여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지네요.

② ㉔에 대한 얘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 목적에서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㉔에 대한 얘기는 임 씨가 꺼냈지.
해설	일단 ㉔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은 ‘나’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으니 허용할 수 없겠죠? 나아가 ‘저’는 ‘기범’이 세상에 죄를